세계평화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교자료

개 교회는 원하는 주일을 택해 세계평화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성령강림절 후 첫째 주일인 올해 5월 30일을 특별헌금과 함께 세계평화주일로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일의 성서 일과 본문과 세계평화주일 주제를 연결하는 설교 작성을 위해 본 설교 자료를 활용하세요. 본 자료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 가능합니다. 함께 제공된 예배 순서를 주보나 유인물 형식으로 배포하여 교우들이 이 특별한 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와 어린이 자료 및 나눔을 위한 질문을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세요. ResourceUMC.org/PWJS

오늘 함께 읽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특권을 상속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또 그들을 위해 정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루터 플레이스 기념 교회에는 눈에 띄는 두 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의 초상입니다. 그는 뉴욕시의 할렘 지역에서 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후 독일에 돌아가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나치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바로 옆 창에는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그녀를 억류했던 이들로부터 탈출했지만, 다시 돌아가 미국 내에서 노예제로 고통당하던 700명 이상을 구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 교 자 료

알지도 못했던 이들의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바울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살도록 격려했던 그 삶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특별주일선교헌금은 이를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평화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예물이 연합감리교회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실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친척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를 거스르며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즐거움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신생(New Birth)" 이라는 설교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 인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격, 생각, 말,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었다. 하나님은 정의, 자비,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시다: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은 인간 또한 그러하다.

"아바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의 정의, 자비,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되시기까지 세상을 충만히 사랑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 지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민족성, 인종, 언어, 범죄경력, 선호 정당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은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삽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유산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받습니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 교 자 료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전적으로 또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서로 서로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완전하고, 포용적이며,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즉 그분 자체로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와 상호연결성의 표상이 되어 주십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살 때 우리는 결핍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발견되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나와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된 여러분, 서로 연결된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사역을 통해 공동선을 위해 애쓰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일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의 풍성한 평화와 정의를,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 여전히 우리의 관계들을 망치기도 하고,
-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체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 피해를 보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 상처 입은 이웃을 지나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 즉 양자 됨은 선물로서 매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발견되는 약속입니다.

세계평화주일

설 교 자 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냅니다.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특별헌금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세계평화주일 특별선교헌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은:

- 동콩고연회의 공평한 교육 정의를 위한 간담회를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피그미족을 사기와 착취에 취약하게 하는 문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시에라리온의 로티펑크 공동체(Rotifunk community) 내의 어린 소녀들을 위한 "Letting Girls be Girls — 소녀들을 소녀답게 하자"라는 제하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 또한 인도 캐논 나가르 지역의 집시 여성들을 위한 경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가 드린 세계평화주일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에 남아 가까운 곳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연회의 세계평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umcjustice.org/who-we-are/annual-conference-connections).*

세계평화주일은 전 세계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_____ (개 교회 이름을 넣어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 우리 사역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서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평화와 정의를 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전적으로 거룩하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의 연합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함과 은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평화주일 헌금은 형제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교자료

몇 세대를 건너서, 다른 국가와 다른 상황에 태어났지만, 저는 해리엇 터브먼과 디트리히 본회퍼의 초상을 보면서 누님과 형님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저는 저 용감하고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봅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실한 제자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에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부정의한 체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건설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연합감리교회 사회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우 리 의 사 회 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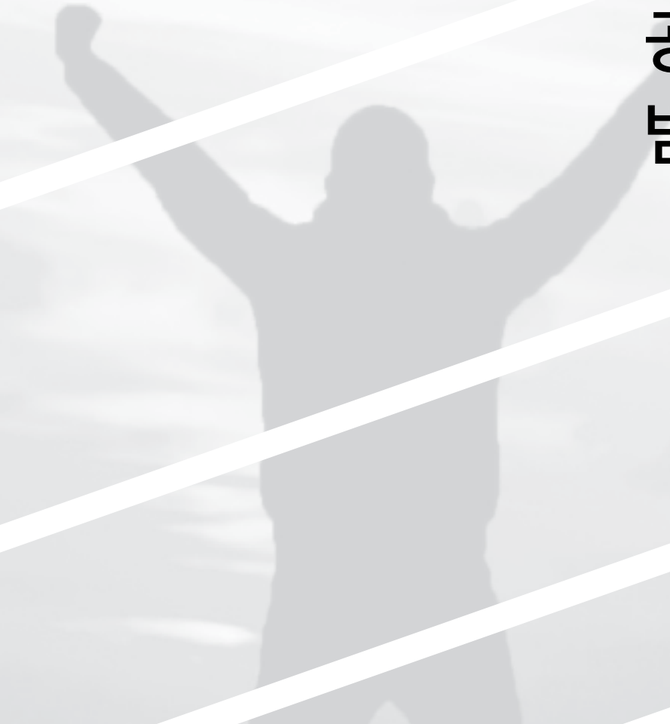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하신 것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선물을 그릇되게 쓴 죄를 회개합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세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세계를 보존하고 더 낫게 가꾸어서 성실하게 써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려 주신 공동체와 성(性)과 결혼과 가정의 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남성, 여성,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 및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데에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믿으며,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안녕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재산 소유의 권리가 있음과
단체의 교섭권을 가짐과 소비를 책임 있게 하여야
함을 믿으며, 경제와 사회의 곤궁을 제거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며, 모든 인류가
자유를 향유하며, 모든 나라가 정의와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 리 의 사 회 신 경

우리는 인간 만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